

“가족의 건강이 곧 선원의 기쁨”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 지도부장 丁 海烈씨

『의료보험조합은 모든 일이 가입자의 편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그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피부양자 무료건강검사도 그런 맥락에서 발상된 것이지요.』 의료보험계에서만 12년간 근무했다는 해원의보 丁海烈 지도부장은 이렇게 입을 연다.

『선원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남는 재정적인 여력을 그냥 쌓아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선원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저희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번 일을 구체화 시켰습니다.』라면서 그는 『예방을 위한 검사혜택의 기회가 없는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결국 선원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고, 의료비절감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의료보험조합이 바로 그들에 의한, 그들의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데도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말해, 그가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확고하고 논리적인 의지를 가졌는지를 표현해주었다.

그는 그의 경력이 말해주는 것처럼, 조합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새로운 조합사업을 발상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독립



적인 단체로써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점차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또, 『피부양자 전체에 대한 건강 검사를 계속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검사대상자의 호응도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겁니다.』라면서, 피부양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도서조합, 소비조합 등에 관련된 일을 했다면서 조합업무와 자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며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보람있는 일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은)